

Atmosphere X.

고난을 다루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1. 성경적 인간론

(1) 삶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답이다. '삶'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은 동물도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존재인 이유는 '삶'에 대한 의미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본능이 이끄는대로 사는 '동물의 생존'과 다르다.

인간의 삶을 '희로애락'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다. 오늘 내가 느끼는 삶의 '체감'이 바로 삶의 실존이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다. 남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이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환경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오늘 당신이 느끼는 삶의 체감은 어떻습니까?'라는 말과 같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절대적 질문을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에 따라 상대적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지속되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절망, 고통, 불안, 슬픔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앙은 인간의 삶 안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그에 대한 답이다.

(2) 고통에 대한 기준과 원인

고통을 체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체감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에 기인한다. 어떤 문제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만한 힘이 있다면 더 이상 내게 고통이 아니다. 고통을 무게로 느끼지 않는다.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말벌에 쏘였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견딜 수 없다. 그 이유는 모기와 벌이 주는 체감의 고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견딜 수 있다면 괜찮은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3)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없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것이다. 예방적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예방이 모든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예방인가? 인간 스스로가 고통의 문제를 예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런 도움 없이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과연 그런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이 없어질 순간이 온다. 그 때도 혼자 버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신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솔직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지이다. '나'로 대변되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힘이 있는지, 인간이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4)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을 ‘죄인’이라 말한다. 죄인이란 연약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다. 그런데 내 능력보다 가시덤불이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고통인 것이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문제를 달고 사는 것이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정의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능력있는 사람, 능력없는 사람, 흑인, 백인, 황인, 부자, 가난한 자, 똑똑한 자, 바보같은 자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인’ 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차별의 기준이 없다. 오직 하나의 기준이다.

2. 의인과 죄인

죄인된 인간의 궁극적 소망은 온전함이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율법의 노력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긴다. 그런 의인됨의 안정감은 ‘죄인’과 비교하여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마음이다.

(1) 예수님의 관점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죄인’ 이라 말하셨다. 자신을 죄인이라 말했던 세리나 창기 같은 자, 병든 자들을 의인처럼 보셨다.

[누가복음 18:11-14]

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런데 세리는 떨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의인과 죄인의 관점은 의미가 없다.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칭했던, 죄인으로 칭했던)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2) 공통점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과,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의 공통점이 있다. 의인이 되고 싶었던 바리새인의 마음도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신을 죄인이라 보았던 세리들도 연약함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다. 결국 연약함은 답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 와도 같다. 모든 문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아니다.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이 죄이다. 연약함의 문제는 죄이며,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3)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로 보아야 생명의 앳모스피어를 유지할 수 있다.

연약함은 모두를 의인으로 또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바리새인의 의인됨도 뿌리는 연약함이다. 세리들의 죄인됨 역시 그 뿌리는 연약함이다. 한 연약함 안에 ‘의’와 ‘죄’가 공존한다. 이것은 모두를 피해자요,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안에 있는 로마서 7장의 두 가지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고통-죄’라는 현실은 있는데,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 선악과를 먹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한 가해자가 공존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인은 가해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한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가해자인가?’ 결론은 연약함이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인간은 풀어낼 수 없다. 오직 연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뿐이다.

3. 성령과 기도

(1) 복음에 대한 확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경적 인간론을 정의할 때, 복음의 위대함이 계시된다. 죄인된 연약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절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일과 인간을 위해 스스로 피해자가 되셨다. 그 분은 연약한 죄인이 아니기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신 것이다. 피해자, 가해자의 마음이 아니다. 의인, 죄인의 구분의 마음이 아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다. 오직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보셨지만 우리 모두를 의인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2)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결국,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다. 보이지 않는 성령과 연합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믿음의 기도이다. 기도는 영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을 열 수 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그 때 인간은 연약함 안에 머물지 않게 되며, 영이 주는 생명과, 평안과, 능력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넘어서 능력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